

신안~목포~해남 'L자 해안도로' 건설

국도 77호선 단선 구간 연결 공사
목포 달리도·율도서 오늘 설명회
13.5km...국비 4820억원 투입



국도77호선 연결 위한 해상교량 조감도.

신안-목포-해남 등 국토 서남해 'L자 해안도로'를 잇는 국도 77호선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익산국토관리청은 11일 신안 압해-목포 율도-목포 달리도-해남 화원을 잇는 국도 77호선 1·2공구 도로건설공사 주민설명회를 목포 달리도와 율도에서 개최했다. 국도77호선은 인천에서 목포까지의 서해안과 목포에서 부산까지의 남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897km의 장거리 해안 국도이다. 하지만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구간이 끊겨 있어, 이를 잇는 해상 교량 및 터널 건설이 절실했다. 국도77호선의 단선 구간 연결 공사는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연결 공사는 신안-목포-해남 3개 시·군을 해상 교량과 해저터널로 잇는 총연장 13.5km 사업으로

전역 국비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4820억원이 소요된다. 1공구(신안 압해-목포 율도)와 2공구(목포 달리도-해남 화원)로 구분해 시행된다. 지난해 1공구는 롯데건설이, 2공구는 대우건설이 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면 율도-달리도는 자동차로 방문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여건이 획기

적으로 개선되고,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업노선에 대한 검토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노선 주변 주민들의 불편·피해가 없도록 추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열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해남군, 숲 자원화 사업 속도...흑석산 치유의 숲·금강산 둘레길 조성

총연장 34km...2023년 완공

해남군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깨끗한 자연경관과 숲의 가치를 높이는 '숲 자원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읍의 진산(鎭山)이자 군민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금강산에 명품 둘레길을 조성한다. 총연장 34.26km의 둘레길은 오는 2023년까지 금강산-만대산 일대 임도와 등산로 26km를 연결하고, 미개설 구간에는 신설 임도 8km를 조성한다. 둘레길 주요 노선에는 소규모 숲속정원을 조성하고, 자갈길·흙길·모래길·꽃길 등 다양한 테마길을 구성한다. 또 해남읍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구간과 편백·백합나무 숲 구간, 광활한 들녘과 주작산·흑석산

의 절경이 조화를 이룬 구간 등 둘레길로 편입시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충한다. 올해 지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바이킹길로 육천면 신계-영신 구간에 임도 1.5km를 신설하는 등 연차별 계획에 따라 둘레길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해남읍권의 대표 둘레길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의 대표적 휴양림인 흑석산 치유의 숲도 착공 4년만에 조성 사업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간다. 계곡면 흑석산 자연휴양림 인근 50ha에 조성된 치유의 숲은 180㎡의 치유센터와 비롯해 치유 프로그램실, 치유숲길, 치유정원 등이 들어섰다. 특히 음이온 발생량이 많은 참나무 군락지를 중심으로 740m의 무장애 데크길과 350m 흑(黑)돌길이 조성돼 휴양객들이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을 걸으며 치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남군은 트리하우스 등 야외시설을 보완하고,

이달 말부터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또 휴양림 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숲속의 집 16동을 신축하고, 정원·수영장 등 노후 휴양시설을 현대화에 산림휴양관광시설로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치유숲 조성으로 연간 3만여명이 찾는 흑석산 자연휴양림은 유아숲 체험원과 함께 치유·산림교육을 융합한 산림복합단지들이 들어서며 해남의 대표적 산림휴양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전체 면적의 43%를 차지하는 산림을 가치있는 숲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지역특화 조림·특용수조림 사업으로 66ha의 황칠나무를 심어 군민 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편백·단풍·홍가시 등 131ha의 경관수종으로 대단위 산림경관자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해남 흑석산 치유의 숲 치유센터.

<해남군 제공>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목포 유달산 봄 축제 취소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와 목포 유달산 봄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다. 완도군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021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매년 4월 열리는 축제로 청산도의 자연·문화·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목포시도 다음달 유달산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목포 유달산 봄 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그러나 10월 예정된 목포항구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돼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나눔 실천 온정의 손길

WK뉴딜국민그룹, 진도·신안·영광군에 마스크 20만장씩

WK뉴딜국민그룹(총재 박향진)이 최근 진도군 <사진>과 신안군, 영광군에 각각 마스크 20만장씩 60만장(1억50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기탁받은 마스크는 진도와 신안·영광지역 사회 복지시설과 경로당, 장애인 세대 등에 배부됐다. WK뉴딜국민그룹은 금융과 무역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평소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재투자하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에 앞장서는 기업이다. 특히 마스크 10장을 생산·수출하면 1장을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10+1 실천'을 기업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진도군 기탁식에 참여한 박관덕 WK뉴딜국민그룹 본부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마음을 모아 마스크를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주)대풍이브이자동차, 영광군에 성금 1320만원 기탁

대마산단 e-모빌리티특구 입주기업인 (주)대풍이브이자동차가 최근 영광군에 이웃돕기 성금 132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백옥희 대풍이브이자동차 대표는 "미래 정경환경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친환경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회사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풍이브이자동차는 지난 2019년 영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110여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친환경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46명의 직원이 2인승 전기승용차 에코EV, 소형화물 전기스쿠터, 다목적전기운반차, 농업용 전기화물차 등을 생산, 매출액 100억원을 달성한 영광 대



마산단 e-모빌리티특구 대표 기업이다. /영광=이종운 기자 jylee@kwangju.co.kr

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건설현장 안전·청렴 결의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는 최근 신안군 도초면 팽마당 등 12개 사업지구 공사 감독 및 시공회사 현장대리인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안전·청렴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참석자들은 안전한 공사현장 조성과 업무 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다짐했다. 또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전파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와 품질 안전관리 교육도 진행했다.

지난해 현장 무재해를 달성한 목포무안신안지사는 올해도 공사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무재해 달성에 도전하고 있다. 한화진 무안신안지사장은 "정부의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안전 관련 법규가 강화됐다"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와 투명한 정령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각·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